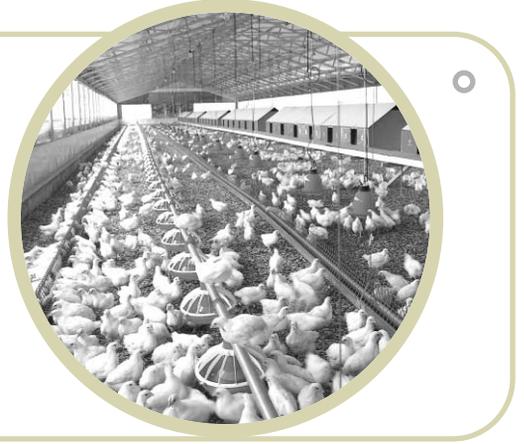


6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육계 사양관리 체크 포인트



유 재 석 대표
토금토금

일찍 찾아온 이상기온 현상이 주야간 기온차이를 크게 해 더위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육계 사양관리면에서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고, 생산성 또한 크게 좋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사료가격 인상과 품질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병아리 가격 폭락으로 부화업체의 어려움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농장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보다 거래회사를 수시로 바꾸면서 일시적인 조건에 따라 움직임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얼마 남지 않은 우리업체의 준비기간이 무의미하게 지나가지 않도록 다같이 진지하게 점검해봐야 할 시간이라 판단된다.

2007년 6월 달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지역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IB(전염성기관지염, 법정 2종전염병)의 발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두 번째는 일찍 찾아온 무더위가 시작된 일이며 세 번째는 사료의 품질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네 번째는 곰팡이에 오염된 사료가 농장에 공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입추수수를 조절해야 할 시기이며, 여섯 번째는 계절에 맞게 육추실 상황을 변화시켜야 할 때다.

이런 몇 가지 계절적으로 변화된 사항에 대해 점검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1. 6월 육추실 꾸미기

6월은 겨울에 비해 온도관리에 큰 어려움이 없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다. 따라서 연료비용 문제로 인해 육추실 크기를 좁게 했던 농장은 가장 먼저 육추실 크기를 최소 130수 이상 넘지 않도록 넉넉히 준비하자. 10,000수 계사의 경우 실 육추실 평수가 77평 정도가 필요하다. 필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농장에 가보면 지난 겨울 천정에 비닐을 설치했던 것을 지금도 육추실로 계속 사용하고 있어서 육추실 크기가 작아 층아리가 발생하는 농장이 많기 때문이다.

보조 물통은 사료 통 옆에 당연히 있어야 하고

물통 근처나 닙플 밑에는 종이나 비닐을 깔고 초이 사료를 바닥에 뿌려줘야 한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겠지만 사료가 먼지나, 물이 먼지나 계속 질문을 하는데 난황의 소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사료를 얼마나 빨리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학설이 지속적으로 연구결과로 나타나고 있으니, 사료가 중요하고 탈수 예방을 위해서는 물을 얼마나 빨리 먹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필자는 그런 논쟁과 상관없이 병아리가 입추되면 물과 사료가 동시에 육추실에 있어서 즉시 병아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바닥에 사료를 뿌려주는 것 이외에도 급이기 안에도 사료를 돌려주고 보조사료 통에도 사료를 넣어줘서 쉽게 먹도록 해야 한다.

겨울철에는 습도유지와 첫물 급수를 위해서 바닥에 종이를 깔고 물을 뿌려주고 사료도 뿌려주지만, 6월 달에는 습도문제가 겨울보다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비닐을 깔고 사료를 뿌려줘도 큰 문제는 안된다. 물론 종이보다 비닐이 좋다는 것은 아니다. 4~5일 후에 종이를 걷는 것이 너무 힘들고 소각에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비닐이라도 깔아주라는 의미이다.

열풍기 역시 야간의 온도유지를 위해서 겨울에 쓰던 대로 설치를 해야 한다. 열풍기 용량을 줄이면 새벽에 적정온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가습기 역시 정상적으로 작동시켜 습도를 60% 이상 유지시켜줘야 한다.

급수기는 보조급수기를 반드시 사용해야 층아리를 줄일 수 있다. 일자급수기를 사용하는 농장은 계사바닥 수평을 반드시 확인하고 급수기에



육추실 크기는 평당 130수 정도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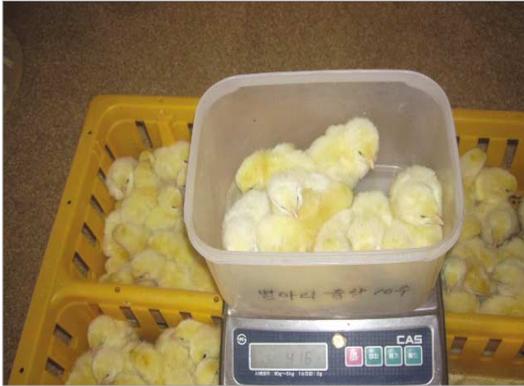
고이는 물의 양은 2/3이상 가득 채워지도록 물 높이를 조절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병아리가 물을 먹지 못한다.

원형급수기를 사용하는 농장은 물통 높이가 대부분 높아서 물통 끝이 병아리의 목에 닿아서 물을 못 먹는다. 바닥에 완전히 닿은 상태에서 한 번만 고정 끈에 감아주면 높이가 맞는다. 대부분 농장은 모두 높아서 병아리가 물을 못 먹는다. 닙플 급수기가 설치된 농장은 닙플 밑에 반드시 종이나 비닐을 깔고 초이사료를 뿌려주고 계사 바닥과 수평을 이루도록 급수기 높이를 일일이 조절해줘야 한다. 병아리 때는 주먹하나 높이가 좋다.

35g 이하의 초산 병아리가 입추되었다면 1~2일 사료를 물에 개서(연이사료) 바닥에 뿌려주기를 권고한다. 물과 사료는 1m이상의 간격으로 병아리가 건지 않아도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2. 입추당일 점검사항

입추하기 전날까지 앞에서 말한 육추실 준비



초생주 품질은 사육성적의 60% 이상을 좌우한다.

를 끝내야 한다. 너무 서둘러서 병아리를 받지 않도록 하자. 입추당일 날은 이런 사항들을 확인 하자.

6월부터 각 부화장에서는 새벽에 병아리를 농장에 분양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농장에서 육추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전사고가 발생되기 쉽다.

입추전날부터 부화장과 직접 통화하여 병아리 출발시간과 예상 도착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농장 위치도 유선으로 확인하고 분양예상 숫자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병아리 품종도 확인하고 계군은 몇 계군이고 몇 수가 들어오는 지 전날 혹은 입추당일 날 출발 직전에 확인이 되어야 한다. 이런 사항을 질 문했을 때 잘 말해주지 않는 부화장과는 거래를 자제해야 한다. 그게 농장한테 이익이다. 부화장 말을 들어보면 농장에 일찍 가고 싶어도 입추 준비가 안되어 일부러 12시나 2시경에 간다고 하는데 잘못하면 수송 중에 병아리가 찌게 된다. 기본 약품도 입추 전에 미리 확보해야 한다.

요즘 병아리 품질이 많이 낮아졌는데 농장에

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병아리 상태를 잘 확인해야 한다. 덩과 병아리 무게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하고 병아리박스 깔짚 상태와 배꼽, 항문상태, 깃털색깔 등도 확인해야 한다. 클리닝은 가급적 브랜드가 있고 검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비싸더라도 제대로 효과가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요즘 부화장에서 지방 검역소의 검역결과를 클레임처리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농장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수의과학검역원에 가검물을 의뢰해야 하는데, 현장에서 농장이 문제 병아리에 대해 보상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힘들다. 농장 스스로 제대로 클리닝하고 사양관리를 잘 해서 피해를 줄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병아리가 입추되면 수송기사를 바로 보내지 말고 마지막 병아리까지 완전히 쏟고 나서 풀어질 때까지 이상 유무를 확인받아야 한다. 6월은 더운 날씨가 시작돼 병아리 사고가 많은 시기인데 기사에게 사인을 다 해주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면 처리가 참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마지막까지 확인 받아야 한다. 입추당일 날은 보다 넉넉한 하차인원을 확보해야 한다. 50,000수 정도면 6명 이상이 있어야 하차도중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다.

3. 입수수수 조정

우리나라 양계장의 계사형태나 내부시설 및 단열수준에 따라 입수수수를 조절해야 한다. 특



입추수수는 계사의 평수에 의해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

히 시장 출하중량이나 무더위에 대비하여 6월 입추수수를 조절해야 한다.

평당 몇 수를 입추할 것이냐 하는 문제보다도 평당 내부 시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에 따라 수수를 결정해야 한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겨울철에 가장 적게 넣고 봄·가을에 가장 많이 넣고, 여름은 더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시설이 된다면 봄·가을 수준으로 입추하기를 권장한다.

이것은 순전히 생산성 향상만을 생각한 것인데 연료비와 약품비가 수당으로 책정된 현실의 계약서로 볼 때는 맞지 않는 문제다. 하지만 환기가 육계사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본다면 겨울철에는 환기가 어렵고 계사 내 산소가 부족할 수 있고 환경이 열악하니 성적을 위해서는 가장 적게 입추해야 한다.

6월 달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계사를 개방해서 사육해야 하니 농장 상황에 맞게 회사 출하중량을 예상하고 적정 입추수수를 조절해서 입추해야 한다. 담당자와 상의해서 결정하면 된다. 출하 2~3일 남기고 열사에 대한 대책이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



IB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농장 피해가 심각하다.

4. IB(Infectious Bronchitis / 전염성기관지염) 발생 증가

현재 IB 발생이 왜 이렇게 증가하는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육계에서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다.

황사에 의한 영향, 초생추 품질저하, 사료품질 저하로 면역체계 이상, 주야간 기온차이에 따른 사양관리 실패, 감보로병 증가에 따른 면역력 감소, 계분 재활용에 따른 계사환경 열악, 차단방역의 실패 등.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정확한 진단이 어렵고 한 가지로 단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사실 IB는 법정2종 전염병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축주의 이동이 제한되고 일정기간이 지나서 재검사를 실시해 혈청학적으로 이상이 없어야만 출하가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IB가 발병하여 이동제한조치를 받아 출하가 지연된 사례가 있었다.

IB는 바이러스에 의해 전파되기 때문에 전파기간이 짧고 1~2일 사이에 전 계군으로 퍼져 피

해가 크다. 또 사료섭취량이 떨어지고 대장균과 복합 감염되면 그 피해는 더 커진다.

겨울철에 주로 발병하던 본 질병이 4~5월에 집중적으로 발병되는 것은 매우 특이한 상황이다. 신장형 IB의 경우는 30~50%까지 폐사가 발생될 수 있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피해가 큰 만큼 발생 후에 조치는 어렵고 사전 예방이 중요하고 경제적인데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이 백신을 하는 것이다.

백신은 1일령에 분무를 할 경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전문가의 시험 결과에 의하면 30% 정도 밖에 방어가 안된다는 의견이다. 그래도 이렇게 필드에서 발병이 심하면 백신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에는 백신에 대한 후유증이 심해서 백신을 꺼렸지만 지금은 후유증이 거의 없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두 번째 환경적인 문제로는 계사를 너무 건조하게 관리하면 발병확률이 높다. 안개분무를 활용하여 계사내부를 지속적으로 소독하고 습도를 유지해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사료에 각종 미네랄이나 첨가제를 혼합투여해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일도 도움이 되겠다. 호흡기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환기를 할 때는 여러 번 조금씩 개방하여 닭들이 충분히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갑자기 변화된 환경이나 야간에 섯바람이 계사내부로 들어올 때 호흡기 발생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5. 사료의 품질과 오염되기 쉬운 사료

여름철엔 항상 더위로 인한 문제발생이 많은

데 그 중 사료의 변질이 가장 심각하다.

보고서에 의하면 수입되는 곡류(옥수수 등)가 원료로 사용되기 전에 20% 이상이 곰팡이에 오염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다. 여기에 초이사료의 경우 각종 첨가제가 많고 고농도의 단백질이 함유돼 있어서 생산 일을 기준으로 보관기간이 10일 이상 될 경우 변질의 우려가 있다. 장마철은 더욱 심각하다. 따라서 사료 입고 시에 농장에서는 생산일자를 반드시 확인하고 생산일자 7일이 지났다면 즉시 반품해야 한다. '괜찮겠지' 하고 먹었을 경우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벌크 통의 위생적인 관리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실행해야 한다.

지대사료를 육추실 안에 쌓아놓으면 높은 온도에서 더욱 변질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신선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평소 사료를 주문할 때도 가급적 신선한 사료를 먹이기 위해서는 조금씩 자주 해야 한다. 사료 내에 곰팡이 독소 해독제를 넣는다해도 특별히 효과가 검증되지 않기



오염된 사료는 절대 닭에게 먹이면 안된다.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사료품질에 의심이 가면 농장에서 영양제와 첨가제 등을 추가로 사료에 혼합 투여해야 한다.

특히 더위를 극복할 수 있는 첨가제를 후기 때 꾸준히 혼합 투여하여 농장 스스로 품질을 높이면서 사료회사에게도 품질향상에 대해 요구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6. 무더위에 대한 대비

6월 입추농장은 7월의 무더위에 대해 충분한 조치를 하고 입추를 해야 한다.

어느 해 보다도 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가 있는데 작년처럼 빗나가길 바라지만 항상 기상 이변에 대비해야 열사 등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차광막을 지붕에 설치한다거나 지붕에 호수를 연결해 물을 뿌리는 설비를 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 계사마다 충분한 환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다.

무창계사에서는 쿨링패드의 작동여부와 안개



지붕 위에 노즐을 설치하여 물을 뿌리면 3~4℃ 온도를 낮춘다.

분무장치를 점검하는 일도 해야 한다.

더위 스트레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비타민C 제제와 미네랄제제 선정도 미리 확인해 보고 준비해야 한다. 물을 직수로 연결해 차고 신선한 급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에 있는 물통에 단열을 해서 물이 데워지지 않도록 해준다. 요즘은 인슐레드(단열천막)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검증되었기에 여름철에 사용을 권장한다.

꼭 닭을 잘 키워놓고 출하 2~3일 남기고 안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에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이를 예방할 수 있다.

7. 맺음말

6월은 더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마지막 달이다.

입추를 서두르기보다는 완전하게 준비를 한 후에 입추를 해야 농장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농장이 부족하여 회사에서는 입추를 독려하고 있지만 앞에서 언급한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 최소한의 준비를 한 후 입추날짜를 결정해야 한다.

생산성 향상도 중요하고 안전사고 예방도 중요하다.

6월은 날씨가 매우 불안정하고 변화무쌍 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분적으로 무더위도 있고 새벽과 밤에는 기온이 낮아지기도 할 것이다. 비도 한 번에 많이 내릴 수 있다. 계사 배수로 점검도 체크해야 할 부분이다.

좀더 세밀한 관리를 통해 농장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계절적으로 육계 사육이 어려운 시기지만 농장마다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높은 수익창출의 결과가 나타나길 바란다. 🍀